

(東友提言)

The image shows a vertical column of Korean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The text discusses the education system, mention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eacher training schools, and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Kyung Hee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Korea Normal University. It also touches on the Korean War and its impact on education.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large circular portrait of a man, likely a historical figure or a prominent figure in education. Above the portrait, the name '남다른' (Namda-reun) is written vertically in large characters. Below the portrait, the name '李... (Lee...)' is partially visible.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date '1954년 5월 1일' (May 1, 1954) and a small logo for '한국신문기자협회' (Korean Press Journalists Association).

남다른 努力으로 남다른 繁榮을

李相

直 (54年・經濟科卒
大龍商工會議所理事)

.....
한국인과는 달리, 최근에는 관공체와 일상체로 나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자기실 힘을 절여 능력을 최대 한으로 발휘할 때인 것이다.
이제 어제는 비록 침
세웠고 落後된 모교였지
만 오늘의 주인공인 우
리는 결코 방관할수없는
것이다. 스스로가 창조하
고, 개척하고, 건설해야
한다.
교는 철저한 커리큘
럼설정도 실현되는 후배,
그리고 부여하는 후배들
를 걸러내지 않으면 안될
다. 강단교육에서 試制에
의한 교수에 의한 지도교
육으로 변혁을 가져와야

이다. 慧化專門의 열파
이 50년대의 전성기적 전통 해 모교가 빛나는 전통
이 알게모르게 자취를 감을 내세우려면 모교의 영
춘 현실을 어떻게 볼것 원한 주인공들을 힘
인가. 틀리는 바에 의하면 교회 모임에만 빠짐없이 참
교는 현실감각을 의연한 석한다고 해서 동문의
보수적이거나 또한 주인이 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듯하면서도 실상은 적 구준히 자기 일에 충실했
은 탓으로 발전캠퍼스가 어 국가·사회의 첨단 역
리다고 들 한다. 사공만 많 구으로서 보이지 않으면 험
았지 을바로 백설을인도 과정을 발산할때 충분히
동문으로서 할바를 다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어느것도 피부

서울시在鄉草人會長金道腹(51·政·本會
부회장) 등동이 한국·인도네시아협회 회장으로 지난 13일 취임했다.
금동봉은 오는 5월초 인도네시아를 방문
할 예정이며, 이협회는 양국간의 문화교류
등에 이바지하게 된다.

金 遺 腹
<서울市 在鄉軍
人會長>

韓國－印尼 協會長에 추임
兩國間 文化交流에 이바지

農協全南支部長으로 轉任
總務·貿易部長등 要職맡아

張敬浩
居士의
死

中東高等學校로
반공연행부산지부장등을
맡고 있다.

信用保證基金 清州지점장

平洋化學부 산지점 영업課 長승진	金善興 (65·法) 建 設共濟組合	여충진 (청주 출장 소장) ▲ 박반갑 (69·政) 대 승진	▲ 백남도 (56·佛) 참 차장)	▲ 김정만 (67·政) 신 경리부	▲ 김정만 (67·政)
▲ 이우상 (67·經) 신 영업課 리로。	▲ 허기복 (64·經) 국 제기능율법과 한글위원회 부장으로。	▲ 신명오 (63·經) 韓 국電 大平洋化學 太平洋支店 代 農協 光州支所長으로 昇進。	▲ 박남도 (56·佛) 참 차장)	▲ 허기복 (64·經)	▲ 허기복 (64·經)
▲ 최수용 (67·經) 신 영업課 리로。	▲ 李應雨 (65·農經) 月刊 「消防問題」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梁在興 (65·商·회계) 산) 삼성회계사무소에서 한선합동회계 사무소로 ② 6 0 4 0.	▲ 李應雨 (65·農經) 月刊 「消防問題」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許韓旭 (74·經) 3 月 26 일 결혼。 고속 출입과 3월 26일 결혼。 高女판 결혼과 3月 26 日 결혼。 張增億 (57·經·東大 조사부장으로。 ▲ 최수용 (67·經) 신 영업課 리로。	▲ 張增億 (57·經·東大 조사부장으로。 ▲ 이우상 (73·林·中央 月刊 「農業」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이우상 (73·林·中央 月刊 「農業」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李應雨 (65·農經) 月刊 「消防問題」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梁在興 (65·商·회계) 산) 삼성회계사무소에서 한선합동회계 사무소로 ② 6 0 4 0.	▲ 李應雨 (65·農經) 月刊 「消防問題」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許韓旭 (65·法·新亞 도서관 과장) 3月 11 日 就任。 高女판 결혼과 3月 11 日 就任。 張增億 (57·經·東大 조사부장으로。 ▲ 이우상 (73·林·中央 月刊 「農業」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張增億 (57·經·東大 조사부장으로。 ▲ 이우상 (73·林·中央 月刊 「農業」 편집장이 로。 ② 4 6 4 0.
▲ 안전한 투자 봉사 친절한 국 一 証券	서울 중구 명동 1가 10 전화 (776) 9681 ~ 5				

한국조폐공사社長 鄭世雄 (70·行院) 등
문이 70년도 체육관로상 수상자로 결정
되어 오늘 26일 시상을 받는다.
鄭同門은 레스링, 타구, 핸드볼 등의 同
社운동부를 육성 발전시켜온 공로이다.
鄭同門은 국가재건회고회의 농림분과위
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해병대장에게.

76. 年度 體育功勞賞 수상
造幣公社 운동부를 육성

農業協同組合 李朴穆(49· 전문) 동문이 흥부부장에서 全南道支部長으로 자리를 물려받았다.
李同門은 農協內 池昌勲 池昌勲(52· 經) 동문이 財團法人 弘益會監事에 就任
소장등 오직을 두루거쳤으며 특히 英語에 能通하다. 特技는 테니스, 골프였다.

公認會計士 田昌開業
韓國住宅銀行停年퇴직

東龍金 （公認會計士）

中東高等學校長이至榮第 35年間 교단에선 教育者

昌元(57·經)·金鎮
부(副) 3月24日
호(號) 투레토

嘉燦(60·英·利久)
부(副) 4月11日 父

昌華(55·經·東大
장(장) 4月13日 「아
아」서 長男燦호
할(할) 71·林·교사
月17日歿。

오성(61·農生·화성
표)·권오갑(66·
금강공업대표) 4
一母親喪。

容植(50·전문·一
서(서) 4月20日 타
長男建호。

國衡(62·政·천와
실) 4月22일 야우
화희관서 결혼。

興兩(68·林·季仙
·史敎) 4월23일

池泰河(73·
3월5일 연동포)
무임소장판설) 연
D아파트2단지임

△泡煙壺(48·전
社사장) 사무실ing
17 3으로 이전。

△石明珠(74·
반도 뱃손 永登浦
언어 문화원장) 11
충무로4가12-1
당209 10호 토신

△李壯根(66·農
구후암동에 선경원
직대점 개장。
△池泰河(73·
3월5일 연동포)
무임소장판설) 연
D아파트2단지임

△金應興(62·
자업대표) 이사에
에 韓·自動車工
△金應興(62·
무임소장판설) 연
D아파트2단지임

本人의近況이나, 주위
同門들의 諸소식 등이 있
으시면 언제든지 提報

한국전력주식회사
문이 春川支店長에서 本店
영전했다 同門은 徐電의
서를 城西支店次長동
도맡고 두루거쳤으며 現재 韓電東友會
있다.

徐正五 (59·經濟部長)
한국전력支店長
한국電力經理部長에 榮達

朴泰華(60·佛)동류이中東중학교장으로
中東고등학교교장으로
朴東學은 35년간이나 남녀중고등학
교장을 잠은 교육자이다.
朴東學은 한국유일의 眞善密敎學者
로 聽國佛敎學會理事이기도 하다. 金仁澈여
의사이에 2남 1녀를 둠.

胡泰華

信用保證基金 清州지점장

